

연중 제 24 주일

기도서 435면(B해)

제1독서 : 이 사 50, 5-9a
 제2독서 : 야 고 2, 14-18
 복 음 : 마 르 8, 27-35

숲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
(마르 8,35).

감 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성 태 수 신부

오늘의 복음을 요약해 봅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는 예수의 물음속에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고 베드로는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분만이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수난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는 필적 뛰며 “그래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길을 제시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참 구원의 길은 자기를 버리는 길, 즉 십자가의 길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자주 변화되어 갑니다. 탐욕과 일하기보다는 적당히 한탕 해보자는 그래서 양심이 나 선, 사랑 따위는 멀리 쫓겨쳐 버리고 자기에게 이득이 있다고 생각되면 간 쫓겨 다 버리고 달려드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돈과 권력만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참으로 땅만 넓었지 하늘 높은줄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까지도 이런 속에 깊게 물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느님보다는 이 세상 것만을 찾는 우리들이 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예수의 말씀은 우리를 옅어내는 모든 것들—재물, 권력, 명예, 육체 등등—에서 자유로울 때, 자기를 버리고 그 집착의 끈을 끊어버렸을 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나를 부정하고 세상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라 참다운 나를 발견하게 하고 참다운 세상을 보도록 이끌어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는 예수의 질문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 봅시다. 과연 하느님을 만유위에 공경하고 사랑하는지, 하느님의 말씀에 신뢰와 희망을 걸고 있는지, 하느님의 일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 봅시다.

(진안 천주교회)



기강 쇄신운동 추진계획을 들으며

정부는 공직 기강쇄신 운동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운동의 기본목표를 1. 주인정신·창조정신의 발휘, 2. 책임정치의 구현, 3. 대국민 자세의 쇄신, 4. 잔존 부조리(세무·위생·건축분야 등의 대민 특수장구의 부조리)일소, 5. 공사생활의 솔선수범 등으로 정하고 실효성 있게 실천키로 했다고 한다. 대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고, 또 꼭 필요한 일이어서 이를 환영한다.

정부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국민들에게 외채절감운동이라든가 저축에 전국민이 참여해줄 것을 호소해 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서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여 왔다. 그것은 부(富)가 어느 한 쪽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민들은 그일은 특수층이나 할 일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

옛부터 동양의 정치사상은 백성을 위하는 민본(民本)이다. 따라서 정치윤리도 정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백성을 덕으로 다스릴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다 보니 바가 오지 않아 농사짓기가 어렵다거나 전염병이 창궐하여 신음소리가 높으면, 이 모두가 군주의 부덕(不德)한 탓으로 돌리고 군왕이 스스로 겸허한 자세를 갖는 노력을 했다. 이것은 서민들이 나라의 주인의식을 갖고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서양의 민주(民主)정치와 다른 모습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바를 겸허하게, 또 제 살을 드러내는 아픔을 감수하며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말로만의 책임정치가 아니라 실제로 책임을 지는 정치를 원하는 것이다. 중공 비행기가 이리시에 사람과 재산을 다쳐가며 불시착한 사건만 해도 그렇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이 사건의 뾰족이 아직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현실, 이를 어떻게 알아 들어야 하는가? (9.11)

숲 정 이 산책



그분이 하시는 일은 놀랍기만 하구나. (마르7:37)

이 말씀은 「귀먹은 반병어리의 치유」(7:31-37)에 나오는 내용이다. 마태오 복음에도 이 기사가 나오는데, 양 기사는 그 전후관계가 동일하고, 그 내용도 동일사건이다.

「반병어리」(모길라로스)라는 말은 「말하기가 힘든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그자는 전적으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혀, 귀는 상호관계가 있는 것이다. 혀가 그러니까 귀도 그런 것이다. 이 치유장면은 마르코복음 8장 22-26절의 내용과 비슷하다. ①예수가 그를 따로 불러 냈다는 것, ②그후 양 귀에 손을 댔다는 것, ③침을 혀에 발랐다는 것, ④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쉬었다는 것, ⑤마지막으로 「에파타」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환자 측의 마음준비 때문에, 예수가 그렇게 예비 동작을 하였던 것이다. 이 「귀먹은 반병어리」의 환자로 말하면, 삶의 실존적인 갈구 없이 예수께 나아가게 된 것이다. 창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환자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렇게 동작을 취하였던 것이다.

「에파타」(아랍어). 이것은 아픈 「테」를 보고 일러진 말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일러진 말이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지고 열려질 때, 귀는 열려지고 혀는 풀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다른 의사와 의사인 예수의 치유방법이 다른 점이다. 예수의 치유는 신유(神癒), 신유(信癒)이지, 기술이나 약물 치유가 아니다. 이것은 정신회복이 그 본(本)이고, 육체치유는 그 결과(末)라는 것이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놀랍기만 하구나」. 이것은 군중의 감탄 내용이다. 하느님 역사(役事), 제2창조에 대한 감탄이다. 아담의 범명 이후 모든 것은 「불구자」가 되었다. 이제 이것이 치유된 것이다. (이사 35:5-6). 이르기 전 지구는 나병, 결핵, 암병 수용소였다.



청소년 대화

크리스찬 젊은이들

—복음적인 성장—

“젊은이들아, 청춘을 즐겨라. 네 청춘이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겨라.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재판에 붙이시리라는 것만은 명심하여라(전도서 11,9).”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소망과 아직은 남아있는 유아적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적 숙결은 더욱 깊어지고 규정적 정신은 더욱 강해지고 성장의 욕구는 가속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젊음의 신비스런 원리는 하느님의 창조력 때문에 오늘날도 존재하는 것으로 “남고 번성하여라(창세 1,22)”하며 내리신 창조주의 강복이 인류 위에 감돌며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은혜로운 시기이며(로마 8,26), 보이지 않는 것도 추구하는 희망의 시기이며(로마 8,24), 모든 면

(영육)이 영양을 받아 자라는 시기입니다(에페 4,16).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자라나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 영광을 얻게 되는 시기입니다(로마 8,29-39).

성서의 젊은세대, 인간의 성장이라는 뜻은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에페 4,13).”

♣ 젊은이들이여 !

여기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춤추자.
그리고 기도하자.

주제 : 젊음의 한마당

때 : 1985. 9. 22(일) 오전 10시

대상 : 전라북도내 모든 청소년

장소 : 전북 학생회관(전주시내 전북동)

내용 : 대화의 광장(토론회), 무용극, 마당극, 미사

안경의 생명은
좋은 렌즈, 정확한 안경
친절과 성실로 교우 여러
분에게 염가봉사
제일안경원
전주 전동성당 사거리
(신호동 앞)
2-0102·72-3225
김스테파노 김마리아나

*각종 담 판매
명랑 닭 집
교우 여러분들께는 염가
로 봉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도 판매합
니다.
위치 : 대야 우시장 입구
김 베 드 로

동 보 한 의 원
동 부 약 국
이리 동부시장 입구
이리 ☎ 52-4 6 6 6
3-7 2 1 7
원장 김경환(바비아노)
약사 범순복(안나)

광 산 골 재
모래·자갈·부록크
벽돌·시멘트
차량-10.5톤, 2.5톤 대기
김 요 섭(요셉)
남북로 전북동 우체국 뒤
전화 ③ 1 2 3 4

교 구 소 식

1. 남원 KBS라디오 방송 가톨릭 시간 안내
매일 저녁 9시 40분부터 45분까지 남원 KBS라디오 "내마음의 등불" 방송시간(매일 방송됨)에 전주교구 홍보국에서 방송(제공) 하오니 신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를 바랍니다(남원 전체지역, 임실, 순창, 장수, 장계, 서부 상관지역)
 2. 남자중학생 성소자 피정: 15일 오전 10시~오후 5시
주제-빈음의 성장, 회비-2천원, 장소-가톨릭센터
준비물-성서, 필기도구, 성가집
 3. M·E 소개모임: 15일 오후 2시 30분, 장소-가톨릭센터
M·E 10차 재모임-15일 오후 3시, 장소-가톨릭센터
 4. 9월중 교미씨움회의 개최: 15일 오후 2시, 장소-전동천주교회
대상-자꾸리아 간부 및 직속쁘레시디움 간부 전원, 회의록과 출석부 배부
 5. 군옥지구 울뜨레아: 15일 오후 2시, 장소-오룡동성당, 빠짐없이 참석 바람
 6. 성서 40주간 신약반 개강: 18일(수)·19일(목) 오전 10시, 가톨릭센터
회비-월 2,000원 강사-김보나 수녀
 7. 신암대학 2학기 추가등록
2학기 입학자를 위한 추가등록-25일까지 교육국(☎ 0041~3)
 8. 유명도 신부님 출국
유명도 신부님께서 유학차 11일 로마로 떠나셨습니다. 많은 기도 바랍니다
- 조의: 김종택 신부님 모친(권수산나)께서 여산 자택에서 9월 11일 오후 7시 선종 하셨습니다. 망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 축! 영명: 성 마태오 복음사가 축일(21일)
황인규, 김진석, 유종환 신부님 축하합니다

축! 한국성인 경축 청 소 년 대 회

1985. 9. 22. 오전 10시 전북 학생회관
천 주 교 전 주 교 구

♣ 잠 간!

은퇴하시는 김종택(요셉) 신부님께 삼가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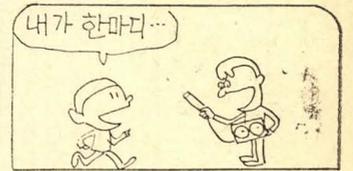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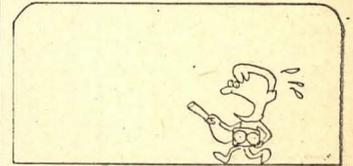
한평생을 외길로, 그것도 사제의 몸으로 한생의 몫을 다하고 이제 조용히 은퇴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장하게 보인다.

사제란, 서품식 그 하나때문만으로도 일반 사람과는 달리 전혀 새로운 길에 들어서 버리게 된다는 옛말이 새삼스럽다. 그러나 그만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의 불효스런 무관심이 가슴아프다.

은퇴하신 신부님들- 좀 찾아가 뵙자
노년에 즐거움이 무엇이겠는가? 관심 속에 종종 찾아가 뵙고 문안드리며 옛 이야기라도 나누며 사랑을 드리자.

※ 김종택(요셉) 신부님의 은퇴미사 및 축하연이 16일(월) 오후 5시 가톨릭센터에서 열립니다. 많이 참석합니다.

요십이(632) 김병오



결혼·약혼·회갑(출장 촬영)
약혼복 드레스 무료대여

영미칼라사진관

급속(면허용) 각종서투사진
신부야외 촬영, 비디오 촬영
(신자분은 특별할인)
전주시 교동 경기전자거리
(성심여고옆) ☎ ②8507
(주) 조 동 호(노렌조)

웨딩드레스·
약혼복 드레스 대여

금수 웨딩드레스 금수 미용실

신부화장·파마·맛사지·부케
신부야외촬영·비디오촬영
(신자분은 특별할인함)
전주시 경원동 관동로변
민정회관과 소서빌딩 사이
☎ 2-8507
주, 박 영 숙(유리아)

3개월 수료 자격증취득 보장
개인지도, V.T.R 교육
취업보장, 개업 알선
미용을 하였으나 자신이 없
으신분 상담 환영

현대 미용학원

중앙성당 건너편
코야백화점 앞
김 금 순(미베사)

특수자연시 컴퓨터로
마음에 원하시는 안경으로
눈을 밝고 보호해 드립니다
눈을 편하게

보안당 렌터

전주구역전오거리 ☎ 3-3032
주. 윤 베드로

김종환치과의원

원장 김종환 (안드레아)
전주시 경원동 3가 50-4
T. 6-7744
주택은행원 신라당 건너편

제 I 지구 각 본당소식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용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의 철
아파트 75-6389 사도회장 이 흥 재

1.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회원님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2. 추석 합동 위령미사: 먼저가신 선영들을 위해 각 가정에서는 미사예를 봉헌합니다
 3. 미사시간 변경: 아침미사와 저녁미사시간만 변경함
아침-6시, 저녁미사-7시
 4. 환자 봉성체: 17일 오후 3시부터 환자를 모신 가정에서는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5. 견진성사 일정 변경: 10월 27일로 연기합니다
 6. 전자울건 기금 수입합시다: 2구좌-이상용·김철문·김정순·이영자·권옥기·조갑수·오봉순, 1구좌-김종화·이부득·박순중·이철기·이인기·강용운·전창환·최영욱·유정순, 계-115,000원, 누계-2,670,000원
 7. 공소 순회미사: 21일 저녁 8시, 왕정리 공소
 8. 금주의 전례담당: 제4조, 차주는 제1조가담당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407,140원 교무금: 305,500원
신축금: 1,024,000원

아파트 소식

1. 성령세미나
일시-16일~18일 오전 10시~12시,
장소-아파트성당, 준비물-회비1천원
①신구약 합본 성서 ②가톨릭성가 ③노트준비
꼭 지참 하셔야 합니다
※ 15일까지 접수 마감
2. 수요 부녀반 예비자 교리
세미나 관계로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3. 중·고등부 합동 요한화생회 임원선출
회장-최진문(고1)
부회장-황보승희(고1)·구대림(중2)
총무-박희정(중2), 각 부서장-박지강·박현정
4. 요셉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에 있습니다
5. 임시 사무장을 구합니다
여성 졸업생으로 열심한 신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신부 권 영 균
사무실 2-5238 사도회장 김 성 원
수녀원 "

1. 사도회: 다음주일(22일) 저녁미사 후 추석관계로 전주일에 함
 2. 추석 합동 위령미사: 29일 새벽 5시30분·저녁 7시30분 먼저가신 선영들을 위해 정성어린 미사 봉헌합니다 미사 지참자 성명·본명, 봉헌자 성명·본명, 주소·전화번호를 꼭꼭 적어서 28일까지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애령회 피정: 21일 오전 9시~오후 5시 장소-천호성지, 오전 9시 복자성당 출발 미사준비·도시락 지참
 4. 중·고학생회 성지순례: 15일(주일) 오전 9시 학생미사 후 출발, 장소-천호성지, 참가비-1천원 성경책·성가집·묵주·도시락·물통 지참 바람 본당내 모든 학생들 참가 바람
 5. 금주 성당청소: 월-사랑하오신 어머니pr 토-순결하신 어머니pr 차주 성당청소: 월-다위의 탑pr, 토-셋별
 6. 금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서남준 ②심철마 차주전례: 해설-김인식, 독서-①이기배 ②김운자
- 지난주 봉헌금: 184,360원 교무금: 486,950원

(삼관)

사제관 79 주임신부 김 영 신
사무실 사도회장 이 정 우

1. 신용조합 월례회: 공식미사 후
2. 학생회·청년회 친목 체육대회: 공식미사 후 상관중학교에서
3. 청년회 임원명단
회장-황남용, 부회장-문병주, 총무-강성호, 서기-안현주, 전례-강창오, 선교-최명순, 봉사-진용자, 체육-김선준, 홍보-김은수

4. 꾸르실료 울뜨레아: 21일(셋째 토요일) 저녁미사 후
 5. 지파진도: 틀니 맞추신 분만 해당됨, 공식미사 후
 6. 가정 기도의 날: 매주 수요일 저녁 "한가족이 모두 모여 기도하는 날"
 7. 청소년대회: 22일 오전 10시~오후 5시 전주 학생회관
※ 중·고등학생 전원 참석 바람!
- 지난주 봉헌금: 121,450원 교무금: 60,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김 반 석
사무실 " 사도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1. 성지참배: 오늘 공식미사 후 성 김안드레아 성인의 제씨 김바오로(란식) 묘지 참배에 떠나게 됩니다 가시는 분께서는 도시락 지참 바랍니다
2. 성모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3. 견진성사: 11월 3일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 바람려 견진 교리서를 구입 바랍니다
4. 다음주일부터 새 성가집을 사용합니다 속히 새 성가책을 구입하세요
5. 추석 합동 위령 및 추수감사절 미사: 29일은 추석날입니다. 미사시간은 주일미사와 같습니다 먼저가신 선영들을 위하여 미사 봉헌합니다 마음리 공소-오후 3시, 광곡리-오후 5시에 순회미사 있음
6. 다음주 전례

미 사	해 설	1독서	2독서	기 도
첫 미 사	유해미	송영은	김정민	이 성 회
공식미사	신영창 오정희	김낙균	김광수	재 경 분 과
저녁미사	강경화	방상원	박인순	임 금 자

□ 지난주 봉헌금: 일반-335,680원 중·고생-12,150원
주일학교-7,550원, 계-355,380원
교무금: 65,0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김 기 끈 오
수녀원 2-8347 사도회장 김 병 오

1. 피미시움: 오후 2시
 2. 성마리아 꾸리알: 다음주 오후 2시
 3. 수세식 화장실 공사: 적극 참여합니다 본당신부님-30만원, 신일균 부회장-100만원, 익명-100만원, 사도회장-30만원, 유영문-세면일절, 김순남-1만원, 서정길-3만원, 감사합니다
 4. 다음주 봉헌담당: 이걸성 부부
 5.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이영희, 독서-①김동연 ②최정식
공식미사: 해설-서정옥, 독서-①배한수 ②고수창
 6. 영세식: 20일 저녁미사 중
 7. 다음주 전례: 17일-골롬바, 21일-마태오 축하드림
 8. 오는 29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앞서가신 조상들을 위하여 추석 합동미사를 봉헌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915,530원 교무금: 446,000원

(호자동)

사제관 75-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도회장 이 교 성
수녀원 2-4804

1. 축! 중·고 지도교사회 탄생
이창욱, 황용하, 이성렬, 임미승, 강문숙 선생님
 2. 모임: 오늘-성모회·울뜨레아 차주-가모회·유아세례
 3. 구역기도 모임: 17일 오전 10시 효자2단지 5동 502호, 여세시리아 배
 4. 주부 성서대학: 18일 오전 10시, 읍기②
 5. 건축현금(납입자)
100만원-이창욱·노시연 부부, 10만원-김의식 5만원-서두수, 3만원-김향란·김희정
- 지난주 봉헌금: 466,540원 교무금: 233,000원
건축현금: 1,210,000원